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중금시역화 방지를 위한 은총의숲 만들기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부활절 제3주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거룩 거룩 거룩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3. 만 입이 내게 있으면	다함께
----------------	-----------------------	-----

♠ 공동기도	다함께
--------------	-----

자비와 은총의 주님께 간구합니다. 평화를 말하지만 평화롭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생명을 말하지만 작은 생명 하나를 진심으로 보듬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 평화가 우리 마음속 깊이 스며들길 간구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 생명의 샘물이 우리 안에도 넘쳐흐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살아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천안함의 실종자들이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주님, 그 젊은 영혼들을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고 진정한 하늘의 안식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던 아들과 아버지를 잃고 오열하는 유가족들과 동료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사고의 진상이 속히 밝혀지게 하시고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오도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

♠ 위로의 말씀	막16:6-7	인도자
----------------	---------------	-----

♠ 교 독 문	60. 시편139편	다함께
---------------	------------------	-----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	----------------------	-----

대표기도	I. 한성건 선생 II. 조병무 장로
------------	----------------------

응 답 송	찬양대
-------------	-----

찬 양	369(통487).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다함께
-----------	------------------------------	-----

성경봉독	I. 막16:1-14	천승호 학생
------------	-------------------	--------

	II. 왕상19:1-8	문영혜 권사
--	--------------------	--------

찬 양	찬양대
-----------	-----

말 씬	I. 빈 무덤을 나와서	이성운전도사
-----------	--------------------	--------

	II. 밥상을 차리시는 하나님	김기석 목사
--	------------------------	--------

거둠기도	다함께
------------	-----

- 찬 양 487(통535).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다함께
- ♠ 봉 헌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을 의지하고 사십시오. 다시 한 번 일어나 마땅히 가야할 길을 가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이제는 일어서겠습니다. 일어나 주님께서 내려주신 밥상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을 의지해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쳐 쓰러진 이들 곁에 다가가 생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집회
선교회	노래를 들려드립니다 / 손성현 전도사
	기도 : 박미영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박경선 집사	고정한 학생
	김기석 목사	한완식 장로	박성실 권사

4월	영접위원	조병무 조문규 박석희 진정숙 조항미 고숙이
	헌금위원	방문성 장혜숙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길들여지지 않은 예수

그렇다면 예수님이야말로 투사-연인(fighter-lover)의 전형을 보여 줌으로써 완전한 인간상을 제시한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나 간음하다 잡혀 온 여인에게는 밀어를 나누듯 다정다감하시면서도 바리새인의 위선에는 쌍소리를 욱사발로 퍼부었다. 당시 천덕꾸러기로 취급되던 아이들을 다정한 삼촌인 양 안아 주시면서도 성전정화 시엔 상을 둘러엮는 등 한 바탕 깡판을 놓았다. 언뜻 보면 로마 치하의 현실에 침묵한 것 같지만 실상은 열혈폭력단원인 바라바보다 기존체제에 더 큰 위협이 되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 대신 바라바가 처형을 당했을 것이다. 이렇듯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투쟁형 인물이었다는 사실은 안락의자에 앉아 있는 중산층 그리스도인들에게 싸움을 걸어온다.

이뿐이 아니다. 예수님은 한데 세우기 힘든 두 패를 한 품에 끌어안았다. 사역과 놀이를 별개로 보는 우리와 달리 기념비적인 첫 이적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파티를 계속할 수 있게 해 주는 파격을 보이셨다. 큰 비전과 작은 실천을 엮어내지 못하는 우리와 달리 모든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전 지구적으로 죽었지만 사역은 철저히 지역적으로 마을 단위에 집중하였다. 먹고사는 데 몰두하느라 주의 사업에 소홀하다며 죄책감을 갖는 우리와 달리 공생애 사역의 열 배가 넘는 세월을 번두리 육체노동자의 장남으로 살며 가난한 가정의 생계를 거들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긍정의 힘’ 주문을 외워 승리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고 믿는 우리와 달리,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같은 제자는 권력층에 남게 하면서도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의 승자 독식게임에서 건져 내셨다. 이렇게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늘과 땅을 하나로 잇듯이 우리 시대가 좀처럼 하나로 묶지 못하는 두 패를 한 품에 성취하심으로써 우리가 닮아야 할 당신의 참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 주셨다.

예수님이 양쪽을 자유롭게 넘나든 분이라는 사실은 반쪽자리 예수에 익숙한 우리를 몹시 불편하게 한다. 새 애인에 대해 극단적으로 다른 주위의 엇갈린 평가를 접하며 어느 쪽이 진짜일까 번민하듯이 우리는 두 얼굴의 예수 사이에서 곤혹스러워 한다. 토머스 머튼의 말대로 “기독교 신앙은 확신과 평안의 원리 이전에 의문과 갈등의 원리”이지만 우리의 본성은 늘 모

순과 긴장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교회는 버거운 예수의 모습은 폐기하고 편안한 예수의 모습을 선택함으로써 혼돈과 갈등에서 벗어나고, 이 반쪽짜리 예수는 정통이란 이름으로 굳어진다.

이제 반쪽짜리 예수는 빼낼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신앙의 속살에 깊숙이 박혀 있고, 이것은 우리네 삶에서 '제2의 원죄'와 같은 가장 심각한 문제다. 왜냐하면 실제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몰고 가는 것은 성경공부나 제자훈련보다 예수님 하면 탁 떠오르는 이야기나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서사신학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생활과 인격을 빛는 것은 교리가 아니라 이야기, 이미지, 상징, 메타포, 상상력 같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닳기를 그토록 사모하는 역할모델로서의 예수님이 한쪽으로 고착되어 있는 한 아무리 묵상을 많이 하고 훈련을 오래 받아도 자기 입맛에 맞는 뻘한 예수의 모습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 이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조바심 어린 우려가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다. '개독교'와 '떡사'만큼 국민의 지탄거리, 네티즌의 악플거리, 술자리의 안줏거리로 선호되는 것이 있던가. 실제로 개신교인의 수는 뚜렷이 줄고 있고 사회적 영향력은 바닥을 친 지 오래다. 기독교(基督)이 개독교로 왜곡된 것은 우리가 먼저 기독교를 왜곡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는 입체적인 예수를 단면적 존재로 박제하고, 무지개색 예수를 무채색으로 탈색해왔다.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통째로 먹지 않고 제 입맛에 맞는 데만 떼서 편식해 왔다. 한 번 받아들인 예수를 죽는 날까지 절대 바꾸려 들지 않는 외골수적인 태도는 한국 교회를 쪼먹는 가장 고약한 벌레다.

자기 입맛을 위해 왜곡된 예수는 얼마든지 자신의 이해를 위해서도 왜곡된다. 평생 시골교회 집사였던 권정생 선생은 『우리들의 하느님』에서 이렇게 말했다. “기독교 2천 년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은 많이도 시달려 왔다. 십자군 군대의 앞장에 서서 전쟁과 학살에 이용당하기도 하고, 천국 가는 입장료를 어머어마하게 받아 내는 그야말로 투쟁이 노릇도 했고, 대한민국 기독교 100년의 역사에서는 반공이데올로기의 선봉장이 되어 무찌르자 오랑캐를 외쳤고, 더러는 팡투기꾼에게 더러는 출세주의자들에게, 얼마나 이용당하며 시달려 왔던가.” 바로 이러한 '예수 학대' 내지 '예수 착취'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게 아닌가.

희귀 식물 엄지호

최석화

도청 공보계장 엄지호는 이 시대의 희귀 식물이다
음지에서 자라는 이름 모를 민초를 빼닮았다
눈빛과 목소리가 그렇고
술한 남의 자식 키워 장가보내는 마음씨 또한 그렇다
며칠 전 그가 혼주 되던 날 바람은 왜 또 그리 세차게 불던지
그가 늘상 지니고 다니는 마른버짐 같은
오랜 수첩에는 이런 숫자 놀음이 적혀 있다
내게 더 큰 위안을 주는 이유다

1982. 4. 16

1983. 4. 14

1984. 4. 17

(중략)

1993. 4. 7

1994. 4. 6

1995. 4. 8

-벚꽃 만개일-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아영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헌금영수기 ◇

십일조헌금:

김재흥 최희영 김철수 유영남 김근종 정옥영 김필순 박재임 박창운
 허정윤 임주빈 최현옥 전월수 김혜영 조현권 박병구 김민화 권미숙
 이우원 옥귀희 허신열 박애순

월정헌금:

김현영 정원석 이갑재 이봉배 이인웅 오송경 이정은 이현순 하정석
 이명희 백성래 한정애 이주현 최재욱 이수정 무명 은혜출장부페

감사헌금:

김용진 박효선 방문성 박해경 권미숙 유은정 허신열 강금연 한훈식
 권채영 백성래 이정은 박병구 김정애 송효진 무명9

녹색꿈헌금:

박영진 이한라 김재영 김기석 김희우 김지윤 이영순 최경미

생일헌금:

구성실 오송경 김주현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예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박영희	김정섭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노순옥	정경례
안디옥	임정자	최경미	정복순	차혜심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최종미	김영순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최희영	조병주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오정숙	박홍재
시온	박효선	허정윤	임미심	홍복선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김재광	이기분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김금순	이봉옥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황선희	이형숙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안홍숙	오현정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백혜숙	야외
갈라디아	유경순	김수진	유경순	송양진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이영란	배삼순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백성례	박혜경

■ 교/회/소/식 /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선교회** : 오늘 오후집회는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귀한 사감과 배움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2. **속장인도자모임** : 2부 예배 후 3층 유아실에서 모입니다.
3. **수련회 준비회의** : 올 여름에 있을 전교인 수련회를 위한 준비회의가 오늘 오후 3시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4. **예수포럼** : 한국기독교연구소에서 주관하는 4월 월례포럼이 19일(월) 저녁 7시에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강사는 김경재 박사입니다.
5. **대청소** : 봄맞이 교회 대청소를 24일(토)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준비물 : 고무장갑, 걸레2)
6. **설립기념주일** : 5월 첫째 주일은 교회설립 10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날 오후에 평화 노래꾼 홍순관 집사를 초청하여 공연을 펼칩니다.
7. **별세** : 지난 16일(금) 노복임 집사님께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엄수했습니다.
8. **신앙실천** : 자기의 시각과 판단을 다른 이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 식당 봉사 : 갈릴리 속 (다음 주 : 갈릴리 속)

* 설거지 봉사 : 남창모 전총길 김인걸 (다음 주 : 장재영 김재영 이준하)

* 새교우 : 전예원 (청년부) 윤요셉 (청년부)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기 위한 안내

1. 예배 시작 10분 전에 와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2. 예배실 앞자리부터 앉습니다.
3. 기도 중에는 출입을 삼갑니다.
4. 휴대 전화는 예배 시작 전에 끕니다.
5. 음식물을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